

보급형 디지털TV 개발 확대

산자부 디지털전자산업과

산업자원부는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합의를 계기로 디지털TV가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등장함에 따라 4조원에 달하는 대기수요를 실수요로 전환되고 '90년부터 국책과제로 지원하여 원천기술을 보유로 수출시장 개척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되어 내수확대, 수출촉진 등의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디지털TV는 금년말까지 국민들이 80%가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함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디지털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CRT형 32인치 100만원대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저렴하게 고화질 디지털TV 구매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영상압축 CHIP 등 핵심부품 개발지원에도 적극 나설방침이다.

또한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디지털 셋톱박스 내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내수확대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은 '04.7.1부터 대화면 디지털TV부터 단계적으로 셋톱박스 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TV는 소비자가 구입요령 및 사용방법, 편리성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가전업계, 전자산업진흥회가 인터넷, 홍보책자, 광고 등을 통해 홍보토록 하고 아테네 올림픽 특수를 겨냥한 가전업계의 홍보 및 판촉활동을 강화키로 하는 등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한국전자전을 활용한 전시 및 가전업계의 디지털TV 체험관을 통해 소비자 체험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고화질(HD) 콘텐츠 제작 확대 및 방송장비 교체

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방송 기자재 도입에 6조원 정도가 소요되어 디지털 전환이 어려우므로 방송기자재의 정부지원을 확대(정통부, 문화부와 협조)키로 했다.

데이터방송, 맞춤형방송 등 양방향 서비스 조기도입으로 서비스 및 광고 수익을 통한 고화질 콘텐츠 제작에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TV 내수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EPG도입, 지상파TV 방송, 케이블TV 방송 시청료 이중부담 해소 등)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TV의 내수 확대를 통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TV에 대한 무관세화를 추진키로 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양방향 디지털TV에 한해 ITA 대상품목에 추가하는 등 한일 FTA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지역별 전략 수출품목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과 EU지역은 대형TV로, 저소득 국가는 보급형으로 수출 주종품목 개발키로 했다.

또 핵심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차세대 개인용TV, 통합전송방식 디지털TV 등 3개 과제에 대해 490억원을 투입하여 8월중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방향TV(2005년), DMB수신기 개발(2007년) 지속 추진)